



무주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지난 15일 무주읍 가옥리 산130번지 일원에서 산불 진화 유관기관인 무주군청과 무주소방서, 익산산림공관리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합동 산불진화 시 즉각 적이고 효율적인 진화를 목표로,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상호연결 및 진화 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산불신고, 접수, 상황전파,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급수·초기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산불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실시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첨단ICT 기술을 이용하여 산불지휘차량을 통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아간산불 상황에 대비한 열화상 카메라 탑재 드론의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잔불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산불진화드론 운용 및 진화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인력 투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산불진화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진화가 가능하게 하여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신풍동 지사협,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호길)가 지난 15일 관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오늘도 안녕하세요?’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새로 추진한 특화 사업으로 관내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고립되어 있는 중·장년 1인기구 및 자살위험이 있는 기구에게 필요한 물품 제공 및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써 이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월 2회 추진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는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늘려갈 예정이다.

이번 회차에는 둑거 및 윤둔의 생활로 고독사의 위험과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2세대에게 파김치, 호박버섯볶음, 파래무침, 오징어국 등 각종 반찬을 직접 전달하며 인부를 확인했다.

최호길 지사협 위원장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사항을 모니터링하며 관계형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노력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우리 동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형호 신풍동장은 “이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김제청진회 ‘맞손’

사회공헌 활동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향상 협약… 김제청진회, 백미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청진회(회장 임재훈)가 김제장애인복지관(관장 박승택)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김제청진회는 백미 10kg, 30포를 복지관에 기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유대관계 형성과 문화여가활동 지원,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장애인식 형성을 위해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임재훈 회장은 “이번 협약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택 관장은 “김제청진회가 그동안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청진회는 지역 대표 순수 자생 봉사단체이며, 지난 1971년 창립 이후 53년 동안 밝은 김제, 새마을 청진’이라는 구호아래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불우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장수군은 지난 14일 장수향교(전교 육동수) 주관으로 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석전대제는 석전제·상정·정제라 하며 문묘제례악과 그 의식을 보존하기 위해 198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성균관 및 향교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성현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이날 행사에서 조현관은 고홍기, 애현관은 박팔봉, 종현관은 안충현 유림이 봉행했으며 전통 제례순에 따라 조현관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조현례, 아현례, 종현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육동수 장수향교 전교는 “석전대제는 문화·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예절과 충효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향교에서는 석전대제를 비롯해 향교일요학교 등 인성교육과 기로연 등 장수의 유교전통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계승해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소방서,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무주소방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농기계 취급 사고는 총 1274건이며, 이 중 399건(32%)은 영농철 시기인 3~5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법에는 △농기계 사용법과 주의사항 숙지 △사용 전·후 농기계 점검 및 정비 절차 △도로로 운행 시 교통법규 지키기 △음주 후 농기계 조작 절대 금지 △헐렁한 옷 또는 소매가 긴 옷 착용 금지 등이 있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며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신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자지사
010-88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산지사 8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임실=진충영 기자

정읍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이달 불철 야외활동 증가에 예상됨에 따라 대중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점검은 시민 및 타지역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원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내장산 워터파크, 아양숲, 천변누리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집중점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